

본문: 요한복음 4 장 3-3-15

제목: 언어를 빼앗긴 자들의 언어가 되어라

1.

요즘 교회 주변을 산책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기 때문입니다. 겨우내 죽어 있는 듯했던 생명체들이 따스한 봄기운과 함께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보라색 제비꽃들이 봄바람에 흔들거리며 인사합니다. 노란 수선화는 꽃망울을 이제 막 틔우려고 합니다. 기나긴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낸 녀석들이 하도 기특해서 쓰다듬어 주면서 한 마디 했습니다. "긴긴 겨울을 통과하느라 고생 많았다. 잘 견디고 버텨내 주어서 고맙다." 이 말을 꽃들에게 해주고 나니 지난 시간들 힘겹게 잘 견뎌오셨고 잘 버텨오신 우리 교우들에게도 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긴 겨울 잘 버텨주어 고마워요." 추운 겨울을 이제 거의 통과해 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춥디 추운 인생길 걸어오시느라 수고하신 분들이 이곳에 계실 겁니다. 갑작스레 불어닥친 인생의 환란과 고난 속에서 힘들게 싸워오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씨름하고 계신 여러분도 계실텐데 좀만 더 힘내시고 견뎌내십시오.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따스한 봄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긴긴 겨울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봄을 맞는 기쁨이 남다릅니다. 미네소타에서 맞는 봄이 기쁘고 설렌 이유가 있죠. 미국의 어느 지역보다 춥고 시린 겨울이겠지만 이곳만큼 봄의 초록 빛깔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곳도 없을 겁니다. 겨울을 통과했기에 맞이하는 찬란한 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 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해 가신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로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통과하는 길은 총 세 길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요단강 동편을 통해 가는 왕의 대로(King's Highway), 서쪽 바닷가를 통해 올라가는 해변길(Via Maris), 그리고 사마리아의 산악지대를 통과해 가는 족장의 길(Patriarch's Road) 입니다. 왕의 대로는 에돔의 왕이 닦아 놓은 유료 도로입니다. 해변길은 조금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 길이죠. 족장의 길은 직선 거리로 가장 가깝지만, 해발 600 미터 가량의 산악 지대를 통과해야 하는 쉽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로 마음 먹으시고 족장의 길을 선택하신 걸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의미와 그곳에서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마리아 방문의 의미와 이유에 대해 한 번으로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의미와 이유는 주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주로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목마름과 생수에 관해 이야기하다 남편으로 주제가 넘어가고 다음으로 예배에 관한 주제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생수에 관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내용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2.

먼저 사마리아라는 민족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어떻게 갈등이 쌓여 왔는지 간략한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당했습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서로 그렇게 상종하지 못할 관계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그 시작은 기원전 10 세기로 거슬러 올라 가야합니다. 솔로몬왕의 아들 르호보함의 시대에 나라가 갈라집니다.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갈라진 것이 B.C 931 년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B.C.721 년에 앗시리아에게 망하게 됩니다. 앗시리아는 사마리아 지역에 이민족들을 엄청나게 유입시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희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열왕기하 17 장을 보면 많은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거주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이전에 자신들이 믿던 신들의 신상을 사마리아 곳곳에 세워놓았다고 전합니다. 인종 뿐만 아니라 종교까지 혼합되는 일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것이지요.

한참 세월이 흘러 남유다도 바빌로니아에게 망하고 바빌로니아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포로민들을 데리고 고향땅에 돌아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토착세력으로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에스라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과 성벽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산발랏의 이름에는 달의 신이었던 '신(sin)'이 있는 것을 통해 종교가 혼합된 인물로 평가되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경책은 모세오경 밖에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오경(Samaritan Pentateuch)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모세오경만을 인정하며 굳게 붙잡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 27 장이 사마리아의 중심지인 세겜에서 열두 지파의 언약체결식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뉜 시대에 주 성전은 남유다 땅이었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와 세겜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것을 근거로 세겜에 그들이 세운 성전이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라가 갈라져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토에 있는 세겜의 성전을 합리화한 것이었죠.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에게 엄청난 아픔과 상처의 사건이 예수님 오시기 150 여년 전에 발생합니다. 마카비 혁명(Maccabean Revolt)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B.C. 167 년 경에 헬라 제국에서 갈라진 셀류키드 왕조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혁명이었죠. 혁명이 성공을 거두고 등장한 유대인들의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였습니다. 이 하스모니안 왕조는 사마리아를 무시하는 역사를 이어받았습니다. 히르카누스 1 세가 사마리아 땅이었던 세겜의 그리심산에 세워져 있던 성전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심산에 세워진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을 없애는 대신에 그들을 강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북왕국의 후손들은 격렬하게 반발하다 하스모니안 왕조에 의해 학살(Genocide)을 당했습니다. 이런 기초가 이어져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는 단죄하고 배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를 예수님은 정면으로 통과해 가야겠다는 내적인 압박을 느끼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3.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른 아침 떠나 정오가 되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동네는 그들의 조상 야곱이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있고, 야곱이 마셨다는 우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 나절 내내 험한 산길을 걸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발이 아프고 피곤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목이 마르셨죠. 그래서 우물을 찾으셨고, 그 사이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우연히 사마리아 여인으로 알려진 한 여인과 조우합니다. 당시 문화로 한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대면한다는 것이 매우 어색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 남자와의 만남은 더더욱 어색합니다. 이 여자도 그것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 한잔 달라는 말을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9 절 말씀인데 이 부분은 헬라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이해해야 합니다. 영어의 be 동사가 헬라어에서는 '에이미(eimi)'인데요 에이미 동사의 분사형태가 여인과 예수님 뒤에서 각각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줄곧 유대인으로 살아온 당신이, 줄곧 사마리아 여자로 살아온 나에게 간청합니까?"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헬라말에는 동사를 통해 인칭정보를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인칭대명사를 굳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I, you, he, she 같은 인칭대명사가 쓰였다면 그것은 그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 쓰이는 경우입니다. 이 문장에 당신이라는 뜻의 헬라말 '수이(sy)'가 강조를 위해 굳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라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쉬'를 사용한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남여간에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어색할 뿐 아니라, 유대인-사마리아인의 갈등 상황을 봤을 때도 예수님의 요청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10 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상적인 '물'에 관한 대화가 '신령한 물'에 대한 대화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사마리아 땅에 생명의 물을 공급하러 가는 사명의 길에서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한 명의 유대인 남자 이상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생명의 물을 선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속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고 진짜 물이 필요한 사람은 이 여인이라는 것을 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는 같은 말입니다. 정작 살리는 물인 생수가 필요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여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한나절 내내 걸어 오시느라 생리적으로 목마를 뿐이지만 여인은 인생 자체가 목마르기에, 정작 "물 좀 주세요"라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사람은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이런 의미에서 10 절 말씀을 하고 계신 듯 합니다. "나는 목이 마를 뿐이지만, 너는 하루 하루 살아갈 동력이 떨어진 사람이구나. 너와 나 중에 누가 누구에게 "물 좀 주세요"라고 요청해야 할까? 네가 물을 달라고 말하면 그가 너에게 물을 주었을텐데." 요한복음은 이중적인 의미를 많이 사용합니다. 3 장에서도 니고데모에게 '다시태어남'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이중적인 뜻을 가진 말이었죠. 생수도 여인은 마실 물로 이해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수의 의미가 성령임을 알기 위해서는 이사야 55 장 1 절과 예레미야 2 장 13 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모세오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언서를 알지 못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생수인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수가 성령을 가리키는 메타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여인은 당연히 두레박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생수를 길어 올릴 수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수라는 말에 여인의 마음이 움직였던지 11 절에 보니 이제 예수님을 선생님이 아닌 주여(Kyrie)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여인은 자기 앞의 유대인 남자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조상인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인지 묻고 있습니다. 12 절의 헬라말을 지역하면 이런 뉘앙스입니다. "다른 이가 아니라 당신(sy)이라도 설마 우리 아버지 야곱보다 큰 분은 아니겠지요?"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보다 야곱을 더 큰 자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14 절에서 예수님은 굳이 필요 없는 인칭대명사인 I 라는 뜻의 ego 를 사용하여 말합니다. "야곱이 아니라 내가(ego)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야." 한 마디로 자기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목마를 물을 주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4.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 방어적으로 물을 필요로 해서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고자 하는 생리적인 반응인 목마름의 현상을 통해 여인의 인생의 문제로 파고드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인생들의 삶에 궁극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마름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반응이라 했지요.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우리 존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그것을 욕망(Desire)라고 부릅니다. 우리 인생에 부족한 그것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면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갈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갈증을 느끼며 바라는 것이라는 뜻이죠.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고 갈망의 상태가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행복을 공식으로 만들어 설명을 하더군요. $H=C/D$ 공식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H, Happiness 는 D(Desire) 분의 C(Capital)이다. 캐피털은 돈 뿐만 아니라 인맥을 포함해서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유형과 무형의 asset 을 말합니다. 예전에 비하면 분명 현재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Capital 의 절대량은 많아졌습니다. 우리의 연봉도 높아졌고 우리의 소유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예전에 비해 더 행복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desire 욕망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캐피털이 많아진데도 욕망이 조절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불행하다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욕망의 흐름과 방향을 재조정해 주고 계시는 듯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살리게 하는 물이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땅의 욕망을 채움으로 우리네 인생의 갈증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대신에 하늘의 욕망으로 채워질 때 궁극적인 갈증이 해소될 것이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외적인 조건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욕망을 채워줄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삽니다. 소유와 소비가 현대인들의 욕망을 채우는 방식이라고 종종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내 집을 마련하고 새 집을 샀을 때 기쁨이 몇 년 가시던가요? 내가 오랫동안 위시 리스트로 갖고 싶었던 물건을 샀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가던가요? 오래 가면 1년, 웬만하면 1주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1주일 후면 소비나 소유로부터 온 새로운 기쁨이 다 증발되어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무언가를 욕망하게 됩니다. 욕망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이 목마름은 평생 지속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읽을 수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은 관계에 대한 갈증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셨기 때문에 사람은 관계를 통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들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해결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피상적인 관계와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고자 하는 관계들은 우리에게 더 큰 갈증만 일으킵니다. 철학자 한병철은 그의 책 "고통 없는 사회(Palliativgesellschaft)"에서 현대인들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좋아요(Like)는 우리 시대의 징표이자 진통제다. 좋아요는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문화의 모든 영역을 지배한다. 어떤 것도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예술만이 아니라 삶 자체가 인스타그램에 적합해야 한다." 우리 삶 자체가 인스타그램에 적합해야 한다는 그의 지적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가깝고 친밀하게 하고자 시작한 인스타는 오히려 우리 인생에 더 갈증만 조장하곤 합니다. 그곳에 올라 오는 다른 이들이 누리는 소비와 소유를 보며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은 비교와 질투입니다. 이를 통해 욕망은 배가 되게 됩니다. 나의 게시물은 더 공격성을 띄게 됩니다. "나도 이렇게 보란듯이 잘 살고 있어, 어때 멋있어 보이지?"라는 생각에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는 몇 개나 달리나 계속 들어가 체크하게 됩니다. 좋아요의 갯수가 나의 가치를 규정해준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으려 하지만 내 기대보다 못한

좋아요의 갯수에 괜히 우울해 집니다. 소셜미디어의 앱이나 창을 닫고 나올 때마다 뭔가 찝찝한 감정이 들기 일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정체성을 굳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어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의 참된 가치와 의미는 다른 이들의 좋아요와 상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욕망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5.

예수님은 굳이 험한 곳인 족장의 길을 통과하여 가면서 사마리아를 꼭 들러야 하는 그분의 의도를 드러내십니다. 사마리아는 예수님의 욕망의 방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연대와 환대 그리고 공감이라는 삶의 방향은 그분을 사마리아로 이끌었습니다. 당시 사람 취급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인들을 통과해 가시기로 하셨고, 그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가장 비참하다 여기며 살아가는 여인을 만나기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문화와 통념에서 벗어났지만 장벽을 넘으셨습니다. 오해를 사더라도 차별과 부조리 한 가운데로 자신을 집어 넣으셨지요. 연대와 환대가 만들어갈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셨기 때문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생수인 성령을 통해 거듭난 생명을 누려야할 대상은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동일했기 때문이죠. 유대 종교의 최고봉에 있는 니고데모도 그리고 유대인들의 차별과 혐오로 저 밑바닥에 내려앉은 사마리아인들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여인도 예수를 통해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에는 동일했습니다. 사람 취급 받지 못한 민족이었던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보는 유대인들에게 Xenophobia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이 당한 Genocide를 치유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60년 전 히르카누스 1세에 의해 제노사이드(Genocide) 당한 사마리아인도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험한 산에 둘러싸여 내륙의 외딴 섬처럼 소외되어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만 하신 것이지요. 장벽을 허물고 경계를 뛰어 넘으시는 예수님의 욕망의 방향을 우리는 읽어내야 합니다.

제노포비아(Xenophobia)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말로 Xenos는 alien, stranger, foreigner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공포라는 phobia가 합쳐져 만들어진 말로 '외국인 혐오'를 뜻합니다. 혐오는 현대의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특정 집단이나 사회 계층에 대한 거부감을 조장하여 그들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모으는 정치적인 도구가 바로 혐오입니다. 평화와 연대를 꿈꾸는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혐오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면 혐오는 나와 다른 이의 차이를 부각시켜 그 차이가 나를 위협할 것이라는 공포를 조장하여 다른 이를 밀어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무형의 공포 중 하나가 바로 제노포비아입니다. 늘어나는 난민들과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위협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공포감이 미국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일어나지 않은 공포를 키워갑니다. 실제로 일어났건 안 일어났건 그 공포심은 사람들을 위축되게 만들죠. 9.11 테러 이후 제노포비아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미국의 많은 백인들은 이제 이주민과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대놓고 표현하는 정치인에게 열광합니다. 미국내 유럽계 백인들이 다른 민족 집단들을 피해서 이사해 가는 현상을 가리켜 'White Flight'이라고 합니다. Parker J. Palmer 라는 교육가이자 시인인 사람이 이런 백인들을 향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타인종을 피해 동네를 한 두 번 이상 옮긴 이들은 아마 속으로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더 이상 도망할 곳이 없다는 것을 말이다. 그들은 어떻게든 다양성 속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저는 주기적으로 교회 주변 도로를 따라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할 때 제 마음 속에 두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차가 올 때 내가 손을 흔들어 인사해도 상대가 내 인사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입니다. 저 안쪽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백인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손을 흔들면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응답해 줍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싸늘하게 굳은 표정으로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우리 동네에 나타난 아시아인이 반갑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신 것은 Xenophobia 의 장벽을 넘으신 것이었습니다. 160 년 전 벌어진 유대인들에 의해 자행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Genocide 를 치유하시고자 그곳을 향하신 것이었을 겁니다. 나와 다른 피부를 가진 사람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건내는 환대와 따뜻한 인사 하나가 장벽을 허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손 흔드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대방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환대의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얼마전 제주 4.3 기념일이었습니다. 제주 4.3은 국가의 폭력에 의해 민간인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려 학살당한 국가에 의한 Genocide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와서야 4.3에 국가에 의해서 행해진 폭력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습니다. 4.3은 북한에서 월남해 내려온 기독교 청년 단체였던 서북청년회가 제주에서 주도한 민간인 학살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제주 4.3과 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대의 반대인 적대가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을 우리는 주목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기독교인들에 의해 자행된 제노사이드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갖고 성찰해야 합니다. 이번 주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희생당한 가족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우리가 그들에게 그만 좀 징징대라 하고 그 정도면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에서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색깔론을 가지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우는 것이 대체 뭐가 잘못일까요? 자식 잃은 부모의 손을 잡아주면서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말해도 좋다고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잘못일까요? 예수를 따라가겠다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의해 함께 우는 사람들이 정죄당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참사가 우리 조국에서 벌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기독교인으로서 억울함을 당한 자들의 언어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정치는 선한 것을 추구하구요. 철학은 참된 진리를 추구합니다. 진선미를 추구하는 예술과 정치와 철학은 모두 언어를 빼앗긴 사람들의 언어가 되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인 진, 선, 미를 모두 갖추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로 언어를 빼앗긴 사람들의 언어가 되어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차별과 혐오 속에서 숨죽이며 외딴 섬처럼 지내던 사마리아인들의 빼앗긴 언어가 되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들의 삶도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 언어를 빼앗긴 사람들, 소외와 차별 속에서 입이 틀어 막혀 말 못하는 이들의 언어가 되어 주십시오. 차별과 분리의 장벽을 넘어서 화해와 연대로 평화의 세상을 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

여러분 주변에 언어를 빼앗긴 이들은 누가 있습니까? 언어를 빼앗긴 그들을 위해 언어가 되어주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함께 나눠봅니다.